

우승청부사 유재학, 현역 감독 유일의 '베스트 파워피플'

(현대모비스 감독)



처음, 그 마음으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스포츠동아 창간 10주년, 또 한번 앞서 갑니다

'스포츠신문의 고급화·클린화·전문화'를 모토로 맞을 올린 스포츠동아가 3월 24일 창간 10주년을 맞습니다. 그동안 한국ABC 인증 스포츠신문 발행부수 1위(2016년 기준)에 오르고, 성인광고를 되찾아 클린페이지의 대명사로 불리는 등 짧은 기간 안에 최고의 스포츠신문 반열에 오른 것은 모두 독자 여러분 덕분입니다. 두 손 모아 큰 절 올립니다. 가짜뉴스가 범람하는 혼란의 시대에 바른 뉴스와 명쾌한 분석, 감동 있는 스토리로 새로운 10년을 준비하겠습니다.

■ 창간 10주년 3대 연중 기획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창간 10주년을 맞아 긴 호흡의 연중 기획 시리즈를 선보입니다. 한국 체육계 엘리트 100인이 선정한 '스포츠 파워피플' 릴레이 인터뷰를 통해 한국스포츠의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파워피플에게 듣는다-한국 스포츠의 힘을 키우자'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한류 등 엔터테인먼트 산업 중심적인 우리나라 대표 연예 기획사들을 입체적으로 조명하는 '엔터테인먼트 파워맨-콘텐츠 리더를 만나다' 시리즈를 통해 스타들의 뒷이야기와 기획사들의 스타마케팅,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이면의 스토리를 담겠습니다.

4차산업혁명은 거스를 수 없는 큰 물결입니다. 지금보다 10년 후가 더 기대되는 '반짝이는 기업, 반짝이는 인물'이라는 테마로 4차산업혁명을 이끄는 스타트업이나 기업인들을 소개합니다. '4차산업혁명 Rising Star, Rising Biz'라는 제목으로 매주 찾아뵙겠습니다.

■ 보기 쉽고, 읽기 편한 편집으로 바꿉니다

편집이 새롭게 바뀝니다. 세상을 보는 또 하나의 창이 열립니다.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경제 등 3개의 프레임이 만들어 보기 쉽고, 읽기 편한 지면으로 찾아갑니다. 대중의 관심이 많은 스포츠·연예뉴스는 홍수처럼 넘쳐납니다. 알고 싶은, 즐기고 싶은 뉴스와 이야기를 프레임 속에 담겠습니다. 단편적 정보 전달에 머물지 않고 깊이 있는 분석과 심층 인터뷰, 기획기사 등 '색깔 있는 기사'를 주요 지면에 배치해,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경제 세상과 독자를 연결하는 창이 되겠습니다.

■ 베테랑 전문기자들이 뉴스의 깊이와 감동을 더합니다

전문기자들이 '더 깊고, 더 친절하게'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전문기자들은 모두 취재 현장을 25년 이상 누빈 베테랑입니다. 이들의 경험과 전문성이 깃든 기사에서 '종갓집 된장'과 같은 깊은 맛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전문기자 특화페이지를 신설했습니다.

■ 네이버 카카오 등 동영상 플랫폼 확대·뉴미디어 채널 강화

스포츠동아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동영상 플랫폼이 더욱 다양해졌습니다. 그동안 SNS의 다양한 채널로 기사 콘텐츠를 서비스했습니다. 앞으로는 네이버, 카카오 등의 플랫폼을 통해서도 스포츠동아만의 재미있는 영상 콘텐츠를 만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체 제작프로그램 제작도 강화해 복합미디어시대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 '자연주의 힐링여행' '불법스포츠도박 추방캠페인' 등 2018년형 명품기획 출몰

그동안 '자연주의 힐링여행'을 통해 여행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한 스포츠동아 여행 프로그램이 업그레이드 돼 독자와 만납니다. 시베리아 횡단열차와 바이칼기행, 안나푸르나 야생화 트래킹에 이어 올해엔 실크로드 역사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천산산맥 투어와 '유럽의 숨은 보물' 코카서스 3국(조지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투어를 준비했습니다.

한국 스포츠와 팬들의 클린화를 위해 연중기획으로 보도했던 '불법스포츠도박 추방캠페인(SAC)'이 올해도 계속됩니다. 시즌3로 출발하는 SAC3를 통해 불법스포츠도박 근절에 앞장 서겠습니다.



스포츠동아는 창간 10주년을 맞아 스포츠 전문가 100인에게 자신이 속한 종목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파워피플'을 묻는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 현역 감독 신분인 유재학 현대모비스 감독은 농구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인물로 선정됐다. 사진제공 | KBL

종목별 영향력 1위는?

야구는 20명 중 9명 정운찬 총재 첫 손 프로야구 산업화에 거는 기대치 반영 축구 정몽규 회장·배구는 김연경 1위 골프 1위는 LPGA 개척 레전드 박세리

대한민국 스포츠 전문가 100인이 선정한 '우리 종목 영향력 1위' 주인공은 리그 커미셔너와 레전드 스타, 현역 감독 등 다양한 응답이 나왔다.

스포츠동아는 창간 10주년을 맞아 스포츠계 전문가 100인에게 자신이 속한 종목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파워피플'을 묻는 설문을 진행했다.

야구는 총 20명이 설문 참여했고 그 중 가장 많은 9명이 리그 커미셔너인 정운찬 KBO 총재를 선택했다. 한 참가자는 "프로야구의 산업화에 대한 기대가 크다. 정 총장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2위는 지난 시즌을 끝으로 은퇴한 이승엽 KBO 홍보위원으로 총 3표를 받았다. 이 위원에게는 "한국프로야구가 낳은 최고 스타로 대중적인 영향력이 크다"는 평이 따랐다. 메이저리그의 문을 연 박찬호, 2018 자카르타-팔렘방 방 아시아게임 대표팀 사령탑 선동열 감독이 각각 2표로 뒤를 이었다. LA 다저스 류현진은 현역 선수로는 유일하게 득표를 했고 한국시리즈 우승 감독으로 전국을 돌며 유망주를 가르치고 있는 조범현 전 대표팀 감독도 순위권에 올랐다.

농구는 커미셔너가 아닌 현역 사령탑이 파워피플 1위에 올랐다. 전체 15명 전문가가 참여한

전문가가 뽑은 '우리 종목 최고 파워피플'은?

종목	이름
야구	정운찬
축구	정몽규
농구	유재학
배구	김연경
골프	박세리
일반 체육	김연아

설문에서 울산 현대모비스 유재학 감독이 5표로 1위, 김연경 KBL 총재가 4표로 2위에 올랐다. 대한농구협회 방영 회장, 여자독보농구 우리은행 위성우 감독도 순위권에 올랐다.

20명이 참가한 축구는 한국프로축구연맹 총재가 아닌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이 과반 이상인 11표로 한국 축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뽑혔다. 레전드인 차범근 전 대표팀 감독은 3표로 2위에 이름을 올렸다. 최강의 전복현대 감독, 신태용 국가대표 감독도 순위권에 올랐다.

배구는 15명 중 7명이 선정한 현역선수 김연경(상하이)이 파워피플 1위로 뽑혔다. 각 종목 중 유일한 현역선수 1위다. 배구 파워피플 1위에 오른 김연경은 최고인기스타-레전드 부문까지 배구에서 '3관왕'을 차지하며 독보적인 존재임을 과시했다. 총 10명이 설문 참여한 골프는 LPGA를 개척한 '전설' 박세리가 파워피플 1위로 선정됐다.

일반 체육 전문가가 20명이 뽑은 영향력 1위 인물은 전체 종목을 대상으로 파워피플 1위에 오른 김연아(평창동계올림픽 홍보대사)였다. 총 7표를 받아 4표를 받은 유승민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위원을 제쳤다.

이경호 기자 rush@donga.com

선수·지도자·행정가 대상...전문성 초점 개인별 응답은 비밀로...솔직한 답변 유도

스포츠 파워피플 이렇게 뽑았다

스포츠동아는 창간 10주년을 맞아 '스포츠 전문가 100인 리서치'를 실시했다. 전문성과 권위를 극대화하기 위해 현역 선수와 지도자, 행정가 등 각 종목별 다양한 분야에서 최고의 엘리트만을 선정해 100인 명단을 구성했다. 분야별로는 야구 20명, 축구 20명, 농구 15명, 배구 15명, 골프

10명, 일반체육 20명을 설문 대상자로 선정했다. 솔직한 답변 유도를 위해 개인별 응답 결과는 공개하지 않고, 설문에 따른 집계 결과만 공개하기로 사전에 통보했다. 최대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인별로 영향력·인기·레전드 세 항목에 대해 1차 종목별 설문을 진행한 뒤, 2차로 같은 질문에 대해 자신이 속한 종목 대상자를 제외하고 답변토록 했다. 장은상 기자 award@donga.com

설문에 참여해 준 100인

●야구(20명) : 강민호(삼성) 김경문(NC 감독) 김기태(KIA 감독) 김인식(전 WBC 감독) 김태균(한화) 김태형(두산 감독) 류종일(LG 감독) 박병호(넥센) 선동열(국가대표팀 감독) 양상문(LG 단장) 염경엽(SK 단장) 이광환(KBO 육성위원장) 이대호(롯데) 이만수(KBO 육성부위원장) 이승엽(KBO 홍보대사) 정운찬(KBO 총재) 조범현(스포츠동아 해설위원) 최희섭(MBC스포츠플러스 해설위원) 허구연(MBC 해설위원) 황재균(kt)

리은 감독) ●배구(15명) : 김세진(OK저축은행 감독) 김호철(국가대표팀 감독) 김희진(IBK기업은행) 박기원(대한항공 감독) 박미희(흥국생명 감독) 서남원(KGC인삼공사 감독) 신치웅(전 삼성화재 단장) 양효진(현대건설) 유광우(우리카드) 이선규(KB손해보험) 이효희(도로공사) 전광인(한국전력) 조원태(KOVO 총재) 차상현(GS칼텍스 감독) 최태웅(현대캐피탈 감독)

●축구(20명) : 권오갑(한국프로축구연맹 총재) 김학범(U-23 국가대표팀 감독) 김호(대전 사장) 김호근(전 대한축구협회 부회장) 박주영(서울) 신태용(국가대표팀 감독) 염기훈(수원) 윤덕여(여자국가대표팀 감독) 이동국(전북) 이응수(전 대한축구협회 부회장) 정몽규(대한축구협회 회장) 조광래(대구 사장) 차범근(전 국가대표팀 감독) 최강희(전북 감독) 최만희(부산 사장) 최순호(포항 감독) 최영일(대한축구협회 부회장) 허정무(한국프로축구연맹 부총재) 홍명보(대한축구협회 전무이사) 황선홍(서울 감독)

●골프(10명) : 강춘자(KLPGA 수석부회장) 김상열(KLPGA 회장) 김형태(KPGA 선수회장) 박도규(KPGA 이사) 박세리(SBS 해설위원) 박인비(KB금융그룹) 양휘부(KPGA 회장) 이정은(6대방건설) 최상호(전 KPGA 수석부회장) 최진호(현대제철)

●농구(15명) : 강아정(KB스타즈) 김동광(MBC스포츠플러스 해설위원) 김경기(KBL 총재) 김주성(DB) 김태환(MBC스포츠플러스 해설위원) 방영(대한농구협회 회장) 신선우(WKB L 총재) 양동근(현대모비스) 양원준(WKBL 사무총장) 위성우(우리은행 감독) 유재학(현대모비스 감독) 이상훈(KBL 사무총장) 임근배(삼성생명 감독) 임영희(우리은행) 주일승(오

●일반체육(20명) : 강광배(한국체대 교수) 김관규(전 스피드스케이팅국가대표팀 감독) 김기훈(전 쇼트트랙국가대표팀 감독) 김동성(대한빙상경기연맹 선수위원) 문형철(전 양궁국가대표팀 총감독) 박시현(전 북싱글국가대표팀 감독) 박장순(삼성생명 레슬링 감독) 박재순(전 양궁국가대표팀 감독) 안한봉(삼성생명 레슬링 감독) 안상미(MBC 쇼트트랙 해설위원) 유승민(IOC 선수위원) 윤경선(두산 핸드볼 감독) 이강석(KBS 스피드스케이팅 해설위원) 이기홍(대한체육회 회장) 이봉주(대한육상연맹 홍보이사) 이태영(종로구청 역도 감독) 이승훈(스피드스케이팅) 제갈성렬(SBS 스피드스케이팅 해설위원) 진종오(사격) 황영조(국민체육진흥공단 마라톤 감독) (종목별·가나다순)

편집 | 안도영 기자 do02@donga.com